

월요광장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고귀한 생명들이 292명이나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오고, 아직도 12명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모두 잊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이제 6월 중순, 지방선거가 끝나고 광화문 광장의 브라질 월드컵 응원과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차츰 잊어갈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서명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의무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실을 알 권리, 정의를 실현할 권리, 그리고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침해자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전국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안전한 나라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일 겁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참담했던 경향이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뒤 사에(西崖) 유성룡(柳成龍)은 시경의 소비편에서 유래한 '징전비후(懲前慈後) - 지난날을 징계하고 앞날을 삼가다-에서 제목을 따온 '징비록'을 씁니다. 자서(自序)에서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란이 일어난 후의 상황을 기록하였고 발단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유성룡은 이 책을 쓴 동기를 말합니다.

"생각하면 임진의 화(禍)야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십 여 일 동안 세 도읍이 함락되었고 온 나라가 모두 무너졌다. 이로 인하여 임금의 백성의 눈물을 뒤로 한 채 파천하기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서울을 버리고 도망치는 선조 임금을 향해 "나라남겨서 우리를 버리고 가시니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외친 농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 원군의 모함, 조정의 갈등 뿐 아니라 끝까지 용감하게 싸운 사람과 도망간 사람의 이쁨도 자세히 적었

으며 당쟁에 몰두했던 무책임과 무반성의 관리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로 지금 여기서 '세월호 징비록'을 써야 합니다. 청해진 해운만이 아니라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이 참사가 일어난 상황과 원인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피해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진실을 알아야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가능해 질 테니까요.

2001년 9·11테러로 세계무역센터에서만 2606명의 희생자가 나왔을 때, 미국은 사태 발생 원인과 사고 과정을 2년 동안 조사하여 백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족과 시민들이 가진 모든 의문에 대해, 책임 있는 모든 관련자들은 진실에 기반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비극의 원인과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해낼 때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고 죄 없이 죽어간 어린 생명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를 될 테니까요.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보다 더 무서운 게 아우슈비츠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문 생존자들은 고문을 당한

일보다 '세상의 낮은 무관심'이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가장 두려운 것이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면 '진실을 기억할 의무'도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단적인 기억'을 해야만, 국가가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을 피해자와 그 가족 속에 가둬 두면 안 되는 거지요.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함께 넘어서야 할 사회적 고통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집단적으로 '기억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기억할 의무'는 잔혹한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일 것입니다.

서해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 씨랜드 화재 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고등학생 해병캠프 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만 '누가마스'(이제 그만!) 할까요? 유족들의 참담한 슬픔을 마음속에 새기며 시민의 힘을 모아 '알 권리'를 씨줄로, '기억할 의무'를 날줄로 진실의 '세월호 징비록'을 써야만 합니다.

법조칼럼

검사, 선생님이 되다



신희영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로 각종 직업 체험 수업을 개설할 예정인데, 장래 희망이 검사인 학생들이 서른 명이나 모였다고 그 학생들을 위해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필 업무가 많이 몰려 바빠 되었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서른 명이나 된다는데 도저히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올해 스승의 날, 나는 그렇게 서른 명의 학생들의 1일 선생님이 되었다. 세 학년을 합쳐서 100명 남짓 되는 작은 학교에서 학년에 상관없이 서른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실에 들어서는데 "와!"하는 함성이 들려왔다. 생각보다 젊음, 그리고 여검사 강의를 하러 온 것에 놀란 듯했다. 한 학생이 "여사 검사님 처음 봐요!"라고 이야기 하길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예쁜 여검사를 기대한 것 아니겠지? 그런 검사는 없단다."라고 답하였더니 다들 웃었다.

간략하게 내 소개를 하고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주었다.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돈 얼마나 벌어요?", "공부 얼마나 해야 검사 되요?"라는 단골 질문도 역시 빠지지 않았고, "사체 본 적 있

어요? 무섭지 않아요?"라는 질문도 나왔다. 초입검사 시절 당직을 하면서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의 변사체 지휘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구조를 마치고 나오던 3명의 소방관이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 깔려 순직하였는데 그 분들의 사체 검사를 지휘하며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다 이야기 해주었더니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망하여 검사 앞에서 온 분들을 모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들이고 그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이 검사의 일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해 주었더니 몇몇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왜 검사가 되셨어요?"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순간 가슴이 조금 먹먹했다. 초등 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의 장래 희망은 항상 '검사'라고 적혀있었다. 한 번도 다른 꿈을 이야기 하지 않는 나를 친구들은 신기해했어. 어린 시절의 나였다면 왜 검사가 되고 싶느냐는 질문은 "검사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니까요. 세상을 깨끗하고 밝게

만드는 사람이니까요."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검사가 되어 아이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으니 선택 답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의 내가 어린 시절 내가 꿈꾸던 검사로 살고 있는지, 그 마음 그대로 일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금 생각하다가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직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검사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너희와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구나."라고 대답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검사가 되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다 같았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 검사가 되는구나!"였다고. 여러분이 가지는 꿈을 믿고 끊임없이 꿈을 꾸면 결국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검찰청에서 후배 검사가 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초등학교부터 내 이야기에 귀기울여준 아이들이 고맙고 그 시간이 참 감사했다. 처음 검사를 꿈꾸던 그 때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아이들이 도리어 나의 선생님이었다.

기고

광주 수돗물 수질검증, 주부들이 나섰다



강영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하고 있다. 또한 동북호 1급수 만들기 종합계획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2013년도 환경부 수돗물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전국 수돗물 음용률은 55.2%로 조사되었으나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하였다.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맹배협을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돗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의 대부분이 "막연히 불안하다"는 심리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과학적 근거를 갖춘 불만족감이 아닌,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불신이기 때문이다.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안전한 물임을 이해시킨다면, 이러한 불안

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 중 하나로, 2011년 4월부터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주부수질검사단'을 조직해 운영 중이다. 주부수질검사단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부들이 주체가 되어, 각 가정의 수돗물을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제도이다. 주부수질검사단 활동을 통해 시민 스스로 수돗물 품질을 검증하고 수돗물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는 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

올해 주부수질검사단은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명의 검사단원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이들에게 수질검사방법, 세대 방문예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이수를 마친 주부수질검사단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방문하여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철, 구리 등 수질 확인에 필요한 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수질검사결과표를 배부하고 그 검사결과와 검사기준 등을 현장

에서 설명한 후 수질적합스티커를 부착한다. 지난해까지 모두 3만1186세대를 검사했지만, 수질검사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이 없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광주시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더불어 '빛어울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 사용의 당사자인 주부들이 나서서 주체적으로 안전도 실태를 확인하도록 한 점, 수돗물 사용에 필요한 상수도 관련 상식을 주부의 입장에서 다른 주부들에게 설명하도록 한 점 등은 주부수질검사단 시행의 실효성 배가에 기여한 요인들이다.

광주시는 시민에게 확인할 수 없고 끄떡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모두가 교통질서 준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병행된다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명재·광주시 동구 양림로(학동)

교통약자 어린이·노인 배려하는 운전습관 필요

자동차 수의 증가와 도로교통법 등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준수율이 비례했으면 하지만 어렵게도 현실은 아닌 것 같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노인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체 교통사고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인구 10만 명 당 보행 사망자 수는 15.6명을 차지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자

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940만 864대로 2012년 대비 2.8% 증가했고, 2015년 상반기 기준 20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한다. 우리나라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를 한눈에 보면 1가구당 1~2대의 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운전자들은 자동차와 함께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고령층 노인도 도로를 주행중인 장애인들의 자차 등을 적극 보호해야 하며, 어른에 비

해 차량의 흐름과 교통사고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진 것을 감안하여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엄격한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이며, 신호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두배가 부과되며, 기타 위반사항도 범칙금과 벌점을 두배 또는 그 이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차량의 통행이 한적한 심야나 무안카메라 등의 단속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지

키는 운전습관은 생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위반상황을 동영상으로 첨부해 법규위반 차량을 고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명백한 증거를 통해 처벌 할 수 없고 끄떡없이 처벌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모두가 교통질서 준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병행된다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명재·광주시 동구 양림로(학동)

社說

물 건너 간 탕평, 호남인맥 씨를 말릴 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17개 부처 가운데 8명(국방장관 내정자 포함)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의 특징으로는 '영남과 충청 편중' 현상을 들 수 있다. 호남 인사는 철저하게 소외됐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국가개조의 명분 아래 '정치 장관'들이 대거 입각한 점도 눈에 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성근 문화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이주영 해수부 장관(유임) 등 4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1기 2명에 비해 배로 늘어 '코트 개각'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전체 지역 대구·경북(TK) 4명, 부산·경남(PK) 2명으로 모두 6명이 영남권 출신이다. 호남은 이기권(합평) 노동고용부 내정자 단 1명뿐이다. 1기에서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전직으로 분류해 방한남 노동부 장관까지 호남 출신이 2명이었다. 그나마 입각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선거

판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경남)과 안보실장(전북)을 제외한 9명의 수석 가운데 대구·경남·경북이 4명으로 압도적이다. 반면 호남은 전무하다. 게다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부산), 국회의장·감사원장·검찰총장(경남) 등 국가 주요 직을 영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충청권의 약진이 있긴 하다. 문창극 총리후보자, 윤성규 환경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가 충북 출신이다. 유민봉(대전) 국정기획 수석, 송광웅(충남) 교문수석도 동향이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의 충청권 참패에 따른 정치적 노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반기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에서 더 이상 '탕평'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곧 이어 차관급과 외장장 후속 인사가 있을 것이다. 대선 때부터 화합을 부르짖어 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인사편중의 폐해를 다시 새겨 보아야 한다.

삼성전자 물량 해외 이전설 왜 반복되나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초대형 가전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활가전 생산의 중심지인 광주 지역 정치권과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베트남 가전공장 설립은 광주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일간지와 베트남 현지 언론 등은 최근 "삼성전자 측이 호찌민 동부 사이공 하이테크파크에 추진하는 70만㎡(21만 평) 규모의 가전공장 건설을 호찌민 시민위원회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도 지난 12일 "삼성전자가 호찌민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2017년까지 초대형 가전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취약한 경제기반을 가진 광주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베트남 공장 건설에 지역사회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사업장의 한 해 매출은 5조 원에 달하고 1

차 협력업체만 60여 개, 2~3차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에 이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베트남 공장 건설은 동남아와 인도 등 신흥국과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프리미엄 생활가전의 전진기지인 광주 생산시설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광주사업장의 생산시설이나 물량을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외 현지화 전략에 따라 지난 2010년 냉장고와 세탁기·청소기 생산라인이 멕시코와 베트남 공장으로 옮겨가면서 해외 공장을 경험한 지역 협력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학습효과'다.

삼성전자는 2년 전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 해외 이전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물량 이전설이 되풀이되는 것은 신료 부족 탓이다. 생산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반성장의 의지를 보다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와 협력업체들의 불안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다시 뽑는 것을 재·보궐선거라고 한다. 통상 1년에 두 차례 정도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는 10월에 치른다. 재·보궐선거는 그동안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학규 씨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보궐선거였다. 손 대표는 1993년 경기도 광명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자당 후보로 나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

다. 그는 2011년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 동당 웃을 입고 순천 지역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이 민노당에 자리를 양보한 혜택(?)을 봤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오는 7월30일 치러지는 재보선은 현재까지 전국에서 14곳이 확정돼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 의미에서 '미니총선'이라 불리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나

미니 총선

주·화순, 순천·곡성 등 4곳이나 된다. 선거구마다 10여 명의 후보자들이 이름이 흘러 거처 대권을 꿈꾸는 잠룡(潛龍)으로 성장하게 됐다. 손 대표가 9년 만에 다시 국회에 입성한 것도 2011년 4월 성남시 분당구 보궐선거였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역시 2013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 대선후보까지 거론됐는데 공식적으로 정계에 들어온 것은 무소속으로 서울시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가 당선되면서부터다.

우리 지역에선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적인 보궐선거 입문

후보자들이 이름이 흘러 거처 대권을 꿈꾸는 잠룡(潛龍)으로 성장하게 됐다. 손 대표가 9년 만에 다시 국회에 입성한 것도 2011년 4월 성남시 분당구 보궐선거였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역시 2013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 대선후보까지 거론됐는데 공식적으로 정계에 들어온 것은 무소속으로 서울시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가 당선되면서부터다.

우리 지역에선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적인 보궐선거 입문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시 원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 F A X 227-9500 >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